

“전주·완주 통합 환영... 지역 미래 위한 결단”

전북 중소기업계, 찬성 입장 표명 “전북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 될 것”

전북 중소기업계가 지역 정치권의 ‘전주·완주 통합’ 찬성 입장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결단이라는 평가다.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병진)는 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김병진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이 전주·완주 통합에 전격 찬성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북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전주와 완주가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행정 이원화돼 각종 비효율이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행정 분리로 불필요한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감내해 왔다”며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도 일관된 전략 수립이 어려워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도 통합 필요성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타 지역 광역지자체들은 통합 선언을 통해 대규모 정부 지원과 성장 동력을 선점하고 있다”며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 중소기업이 국가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중소기업계는 이번 통합이 지역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전북의 30만 중소기업인과 60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정치권과 행정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대승적 관점에서 통합 절차를 신속

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 역시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갖고 통합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전주·완주 통합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공 모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등 도내 산업·업종별 단체 20여 곳이 참여했다.

/오상근 기자

동네 맛집·제조 장인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상공인’ 300개사 신규 지정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지역을 지켜온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올해는 지정 규모를 대폭 늘려 지역 대표 가게와 제조 장인 발굴에 나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6년 ‘백년소상공인’ 300개사 신규 지정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 ‘백년소상공인’은 한 분야에서 장기간 전문성과 경쟁력을 쌓아온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대표 모델로 육성

하는 제도다. 대상은 업력 30년 이상 음식·서비스업 종사자를 ‘백년가게’, 업력 15년 이상 제조업 기반 숙련 소상공인을 ‘백년소공인’으로 구분한다. 오랜 경험과 기술을 이어오며 지역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돕고, 지역 경제의 생활·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취지다.

중기부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전국 2,326개 업체를 백년소상

공인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 누적 151개사(백년가게 88곳, 백년소공인 63곳)가 포함돼 있다. 지정 업체에는 인증 현관, 브랜드 홍보, 시설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지정 규모를 기존 100개사에서 300개사로 확대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각각 150곳 안팎으로 선발해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가게와 도시 제조업 기반 소상공인을 균형 있게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은 경영 역량,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신청 접수는 3월 10일까지이며, 이후 서류·현장 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도 도입된다. 서류 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일부 반영한다. 주민이 체감하는 ‘진짜 동네 맛집’과 ‘숨은 제조 장인’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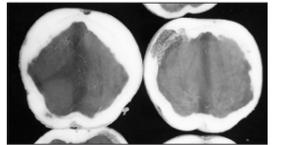
선정된 업체에는 지정사와 인증 현관, 성장 스토리보드가 제공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함께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및 우선 선정 혜택도 주어진다. 인천국제공항 전용 매장 입점, 온라인 플랫폼 진출, 대기업 협업 팝업스토어 운영 등 판로 확대 지원도 연계된다.

/오상근 기자

씨감자 관리·싹틔우기 이렇게

농촌진흥청, 파종 전 이상 유무 확인 등 당부

봄감자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씨감자 관리가 수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씨감자 점검과 ‘그늘 싹틔우기’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씨감자 ‘흑색심부’ 증상

봄감자는 국내 전체 감자 재배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주 재배 작형이다. 파종은 3월 상순부터 하순 사이 이뤄지며, 잠마가 시작되는 6월 하순 이전 수확한다.

농가는 공급받은 씨감자에 이상이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특히 저장 중 산소 부족 등으로 감자 속이 검게 변하는 ‘흑색심부’ 증상이 있으면 씨감자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감자는 쉽게 썩어 초기 생육에 악영향을 준다.

씨감자는 파종 20~30일 전부터 싹을 미리 틔워야 한다. 싹이 튼 감자를 심으면 땅속에서 싹이 나오는 시간을 줄여 생육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수확량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토양 병해충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늘 싹틔우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서 진행한다.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는 30~50% 차광막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막고, 바닥에 부직포나 스티로폼을 깔 뒤 씨감자를 얇게 펼쳐 놓는다.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쌓을 경우에는 2~3일마다 위치를 바꿔 빛이

고르게 닿도록 한다. 적정 온도는 15~20℃다. 낮에는 충분히 환기하고, 밤에는 보온 덮개를 이용해 냉해를 막는다. 습도는 80~90% 수준이 적당하며, 하루 1~2회 바닥에 물을 뿌려 조절한다. 파종하기 좋은 싹 길이는 1~2cm 이하다.

씨감자를 절단해 심을 경우에는 싹눈이 많은 부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른다. 감자 크기에 따라 2~4등분하되, 한 조각에 눈이 2개 이상 들어야 한다. 무게는 30~50g 정도가 적당하다. 절단용 칼은 병 전염을 막기 위해 끓는 물에 30초 이상 담가 소독한 뒤 충분히 식혀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조지홍 소장은 “파종 전 씨감자의 이상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건강 한 싹을 확보해야 초기 생육이 안정된다”며 “이를 통해 병해 피해를 줄이고 수확량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폐점 지점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군산 원도심에 미술관 개관

전북은행이 문을 닫은 기존 지점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군산 원도심 활성화에 나섰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군산 JB문화공간 내에 ‘전북은행 미술관’을 개관하고, 지역 근대미술을 조명하는 개관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와 협력해 추진한 도시재생 연계 프로젝트로, 금융기관이 지역 재생과 문화 활성화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관 기념 전시는 ‘환기의 산, 수군의 길 - 우리가 사랑한 근대의 풍경들’을 주제로 열린다. 가나아트문화재단과 협업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작가들의 삶과 시대 정서를 ‘풍경’이라는 소재로 풀어낸 한국 근대미술 작품들을 소개한다. 전시에는 김환기, 박수근을 비롯해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 군산 JB문화공간 내에 ‘전북은행 미술관’을 개관하고, 지역 근대미술을 조명하는 개관 특별전을 개최한다.

장욱진, 오지호, 유영국 등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군산의 근대 도시 정체성과 맞닿은 기획 전시로, 지역의 역사성과 한국 근대미술의 흐름을 함께 조망하

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시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오상근 기자

경남 창녕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남 창녕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해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일 ASF 발생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돼지 약 2,4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급파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출입을 차단했다. 추가 역학조사와 함께 관련 지침에 따라 농장 내 돼지들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도로 등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 인공지능(AI)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과 파견, 양성까지 종합 지원해 기술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우선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진 또는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 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해 지방 기업 지원을 확

대한다. 제조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스마트공장 도입 또는 공급망 기업 등 제조AI 중소기업은 연구인력 채용 지원을 최대 2명(신진 1명, 고경력 1명)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도 병행된다.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돼 기술 애로 해결과 노하우 전수를 수행하며, 정부가 연봉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참여 연구기관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가 중소기업과 인력을 매칭하고, 인턴 과정과 R&D 프로젝트 수행까지 연계 지원한다. 특히 제조 AI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협력 전문교육을 강화해 양성 인력을 기업 채용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